

# 고소득작목 명품화 지원 팔 걷어

### 임실군, 원예·과수·시설하우스 등 41억 지원

임실군이 돈버는 농업 실현을 위한 고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에 팔을 걷어 부쳤다.

8일 군에 따르면 2019년도 원예와 과수, 시설하우스 분야의 농업인 보조 사업 지원예산은 총 41억원으로, 돈 버는 희망 농업, 살고 싶은 임실 만들기 위해 주력 할 계획이다. 농업인 지원 사업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분야별 지원사업 규모를 보면 먼저

지역특색에 맞는 원예작물 생산지원 사업에 16억원을 투입한다.

임실고추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추품질 차별화사업에 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특징은 폭염 및 가뭄 등 기후변화로 해마다 농작물 고사 등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발작물 관수시설에 1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농업인들이 뜻밖의 기상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대도시 백화점 및 대형 유통시장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타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복숭아 등을 주축으로 하는 과수분야에도 15억원이 집중 투자된다.

임실복숭아의 고품질 명품화에 앞장 서며 농업인 소득향상에 적극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임실군만의 지역특화사업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딸기와 토마토, 부추 등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농업인 소득사업 기반 확충을 위해 시설하우스 신규 시설 지원 및 시설하우스 재배작물의 품질향상 지원 등에 4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심 민 군수는 "올해 원예특작 분야 지원사업을 통하여 임실군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농업이 근간인 지역을 살리고, 잘 사는 농촌 사회를 만들기 위해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더욱 더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이 고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에 팔을 걷어 부쳤다.

## 순창군, 청년창업지원 경제활성화 정책 시동

순창군이 청년창업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관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군은 올해 시설개보수와 이자 지원, 카드수수료, 소상공인 공제가입 장려금 지원, 청년창업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나설 방침이다.

군의 이같은 정책은 최근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 경기 둔화에 따른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현재 순창군에 거주하는 청년(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들의 창업을 위한 시설 증개축과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비의 50%(인 최고 2천만원)를 지원한다.

청년들의 도시 이주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청년 일자리 방안으로 기대되는 이이다.

군은 또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창업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실업률 감소와 청년경제인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도 잡을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는 맞춤형 직업훈련교육은 군에서 직접 교육을 수행하는 작년의 방식에서 탈피해 전문 직업훈련기관 업무협약을 통한 훈련분야 다양화로 군민들의 욕구 충족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기업체감도 분야 214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치를 기록한 순창군은 올해는 기업친화적 행정으로 설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 이차보전과 환경개선사업 관련 시설비 지원, 청년 신중년 고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등 급진적 혜택과 로컬 job센터 운영을 통한 기업과의 연계성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기업친화적 행정과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앞장서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경제활성화 관련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해 살기 좋은 순창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 양봉 활성화사업 조기 추진

순창군이 양봉농가의 채밀량 증대를 통한 벌꿀 가격의 안정과 농가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에 나선다.

양봉사업으로 양봉화분과 양봉기자재, 꿀 생산장비, 장원여왕벌, 축산기자재 등 총 5개 분야에 1억7,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대비 6,200만원 가량이 증가한 액수로, 양봉농가의 소득감소와 벌꿀 생산량 감소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크게 확대

했다. 화분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농가들에게 화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원사업은 오는 1월중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이구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양봉농가의 수요에 맞춰 화분공급이 빠른 시일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양봉분야가



대표하는 소득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13일 동안 유소년 축구 선수·지도자들이 담금질을 하고 있다

## 겨울 전지훈련 열기 가득

### 남원시, 유소년 축구팀·태권도·테니스팀 등

남원지역이 겨울 전지훈련지로 거듭나며 전국의 유소년 축구팀, 태권도, 테니스 팀 등이 전지훈련을 위해 남원을 찾아 그 어느 때 보다 열기로 가득하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6까지 13일 동안 유소년 축구 U-12, U-11, U-10 25클럽 84개팀 1,480여명의 선수 및 지도자들이 남원 스포브리드에 참가해 실전경험 및 전지훈련을 통해 기량을 닦아내고 있다. 유소년 축구팀이 해마다 동계훈련을 위해 남원을 찾는 것은 수원 삼성, 아산 무궁화, 울산 현대 등 프로팀 산하 우수팀이 남원에서 전지훈련을 함께 하고 있어 다른 어느 곳보다 수준 높은 동계훈련과 연습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동계훈련을 위해 남원을 찾는 것은 지리산 중심도시 남원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체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남원시에서는 훈련 기간 선수단 및 학

부모들의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몽골텐트와 난로를 설치하고 체육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선수단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최대의 전지훈련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더욱 많은 선수단의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실의 테니스장 4면, 축구장, 실내 배드민턴장 등을 건립할 예정이며, 이들 시설이 완공되면 남원이 호남권 전지훈련 1번지로서의 명성을 더욱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장중석 교육체육과장은 "시에서는 전지훈련으로 숙박시설 및 음식점 이용, 특산물 쇼핑 등 1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전지훈련 팀 유치와 각종 국제·전국 대회 개최 등의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 실시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리산권 스포츠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매아리

### 농업기술보급사업 신청 접수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경쟁력있는 농업, 찾고싶은 농촌 실현을 위한 2019년도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 등 4개 농업기술 보급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남원시 관내 농업인(개인), 생산자 조직 및 단체 등이며, 각 읍면 직할 농민상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다.

사업내용을 보면 농업인교육 분야의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사업, 생활지원 분야의 지역특색 농업발굴 소득화사업 등 8개 사업, 작물환경 분야의 쌀 소비촉진 활성화 시범 등 5개 사업, 소득작물 분야의 탄소발열체 활용 근권난방 시스템 구축시범 등 2개 사업, 미꾸리 분야의 무환수 미꾸리 양식기술 농가적용 시범사업, 농업정보 분야의 기후변화대응 운습도 지수 활용 가축생산성 향상 기술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620-8006)로 문의하면 된다.

시범사업 대상자 결정과정은 신청→접수→타당성 검토 및 현지 확인→산학협동심의회 선정 심의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방비 등 체납자, 보조사업 지원 제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2019년도 농업기술 보급사업을 통해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꿈이 있는 살맛나는 남원농업의 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소방서, 의용소방대 워크숍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8일 관내 의용소방대원들의 기능 활성화와 지역방재 중심 조직으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의용소방대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더십 향상 워크숍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의용소방대 단합과 화합을 위한 소통·공감의 장을 마련하고,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비전 제시와 조직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방호구조탑설(송상철)의 교육으로 ▲의용소방대 조직활성화 방안 및 소통강의 ▲의용소방대 역할 재정립 및 관련법규 교육 등 내실을 기하는 교육위주로 일정을 편성했다.

조용주 남원소방서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의용소방대원 간의 단합과 소통의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과 함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슬레이트 처리를 통해 건강을 위해 추진한다는 신청을 받는다.

## 남원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신청

남원시는 슬레이트 처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에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예산 6억1,300만원을 확보하고 슬레이트 철거·처리 160동 이상을 처리

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25가구를 대상으로 3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왕길성 환경과장은 "생활환경개선은 최우선 목표"라며, 본인과 가족, 주변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철거대상 슬레이트주택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